

# 불멸의 대강, 고귀한 지침

오늘의 시대는 우리 겨레가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민족의 평화번영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몸과 마음을 바칠것을 요구하고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조국을 통일함으로써 민족의 운명을 위기에서 구원하고 후대들에게 통일된 조국을 물려주어야 하며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지키고 더욱**

**빛내어나가야 한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주체86(1997)년 8월 4일에 발표하신 불후의 고전적로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는 온 겨레의 가슴마다에 송고한 통일애국의 넋을 심어주고 조국통일을 위한 거족적인 투쟁으로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불멸의 지침, 전투적지침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로작에서 민족자주의식은 민족을 강하게 하고 나라를 흥하게 하는 사상적힘과 사상의식이며 사대주의와 외세의존사상은 민족을 비굴하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사상적독소라고 하시였다. 이 가르치심에는 민족자주의식은 민족의 한 성원으로서는 마땅히 지녀야 할 사상의식이며 사대주의와 외세의존사상은 민족자주의식을 해치고 쫓겨가는 위험한 사상이라는 깊은 뜻이 담겨져있다. 민족을 강하게 하는 사상적힘과 민족을 무

기력하게 만드는 사상적독소. 그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기의 의사와 요구대로 독자적으로 살아가려는것은 인간의 본성적요구이다. 마찬가지로 민족자주의식은 자기 민족의 주인으로서의 자각과 민족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나가는 의지이다. 투철한 민족자주의식을 가지자면 사대주의와 외세의존사상을 철저히 반대하여야 한다는것을 위대한 장군님의 뜻깊은 가르치심은 오늘도 새겨주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로작에서 조국애와 민족애는 모든 민족성원들의 공통된 사상감정이며 민족적 단결의 사상적기초라고 가르치시였다. 민족은 피륙과 언어, 문화와 지역 등의 공통성에 기초하여 역사적으로 형성된 사람들의 공화한 운명공동체이다. 비록 사상과 리념, 정결과 신앙, 계급과 계층의 차이 있는 있을수 있어도 조국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나 똑같다. 그렇기때문에

리 이국땅에서 동포를 만나면 그처럼 참다운 인생에서 빛을 뿌리는 조국을 보며 조선민족의 한 성원이라는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으로 가슴이 부들부들해지는 것이다. 이런 애국애족의 마음들이 합쳐질 때 우리 민족이 이처럼 바라는 통일애의 날도 그만큼 앞당겨지는 것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은 온 겨레에게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은 얼마나 귀중한가를 다시금 깨우쳐주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로작에서 오늘 조선사람에게 있어 참다운 인생의 가치와 보람은 자신의 운명을 민족의 운명과 결부시키고 조국의 통일독립과 민족의 통일번영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몸과 마음을 바치는데 있다고 강조하시였다. 여기에는 조선사람이라면 조국통일과 민족의 통일번영을 위한 길에 자기를 아끼없이 바쳐야 한다는 송고한 뜻이 맥박치고있다. 오늘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조국통일보다 더 절박하고 성스러운 위업은 없다. 자기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고 조국과 민족의 운명에 대하여 걱정하는 사람은 북에서 살건 남에

서 살건 해외에서 살건 모두다 조국통일의 기치아래 굳게 단결하여야 한다.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공존, 공영, 공리를 도모하고 조국통일대업을 이룩하기 위하여 힘을 합치는것이 민족대단결이다. 비록 조국통일의 앞길에 험난한 도전과 난관이 가로놓여있다 하여도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제시하신 주체적통일로선이 있는 한 조국통일의 역사적위업은 반드시 성취된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여, 투철한 민족자주의식과 열렬한 조국애, 민족애로 하루빨리 이 땅 위에 번영하는 통일강국을 만들어 내자. **김정선**

## 민족의 내부문제

조국통일은 우리

미국이 남조선을 강점한 결과 우리 나라는 북과 남으로 갈라지게 되었다. 조선인민은 조선의 당당한 주인으로서 외세에 의해 산생된 조국통일문제를 해결할 권리를 가지고 있을뿐 아니라 외부세력의 간섭이 없이 통일문제를 자체의 힘으로 원만히 해결할수 있는 모든 조건과 가능성도 가지고있다. 조선의 통일문제가 민족내부문제, 민족의 내정문제로 되는것은 또한 이 문제가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의 테두리안에서만 해결될수 있는 문제가기때문이다.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다민족국가들에서 통일국가를 형성하는 문제와 그 성격이 다르다. 다민족으로 구성되어있는 나라들에서의 국가적통일은 민족의 통일인 아니라 각이한 민족의 연합으로 이루어진다. 그렇기때문에 이런 나라들에서의 통일문제는 특정한 민족의 내부문제로 되는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민족호상간의 문제로 제기된다.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다른 나라의 경우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본래부터 하나이던 민족과 하나의 국가였던것을 다시 하나로 합치는 문제로서 민족간의 문제나 국가간의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그 어떤 외세도 간섭하거나 개입할 권리가 없고 그 려 리유와 조건도 없는것이다. 조국통일은 철두철미 우리 민족의 지향과 이익에 맞게 우리 민족자신의 힘으로 이룩되어야 한다. **김금화**

###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한 역사적로정

1980년대중엽에 공화국정부의 주동적인 조직에 의하여 북남대화개선이 유 리한 전제가 마련되었으나 남조선 당국자들의 계속되는 분열주의정책과 전쟁책동으로 말미암아 얼마 못가서 긴장상태가 다시 격화되었다. 남조선 당국자들은 대화상대방인 북을 결코 대결을 격화시킴으로써 분열을 지속시키고 저들의 정치적위기를 수습하여 장기집권 야망을 실현하려 하였다. 남조선의 보수 집권세력은 기만적인 《6.29선언》을 발표한 후 《민중화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 리행을 끝낼뿐 아니라 남조선청년 인민들의 애국적 진출에 대하여 《중진보다 더 강력히 다스려졌다.》고 위협하여나섰다. 한편 이들은 《울림의 안전계획》라는 구실하에 민족으로부터

《F-16》전투기를 비롯한 새로운 전투기술기체를 대대적으로 끌어들이 실전배치하고 동족을 겨는 《다각적인 대비태세확립》에 매달렸다. 이러한 사태발전은 나라의 통일위업수행에 난관을 조성하였다. 이로부터 남조선인민들은 남조선에 군사파쇼《정권》이 그대로 있는 한 북남대화도 통일도 실현할수 없다는것을 더욱 절감하게 되었다. 바로 이러한 때인 1987년 11월 11일 조국통일민주주의 전선 중앙위원회와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연합회의를 열고 《남조선의 현실세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당면대책에 대하여》를 토의하고 조성된 사태하에서 북과 남이 진정으로 힘을 합치고 공동으로 노력한다면 능히 현실세를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에 유리하게 전변시킬수 있다고 인정하면서 민족단합 5개 방안을 담아 남조선의 각당, 각파, 각계각층 인민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민족단합 5개 방안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면서 북과 남이 힘을 합치고 민족이 단합하여 련방제통일을 실현할것을 강력히 주장하여나섰다. **김금영**

족공동의 리익에 맞게 해결하여야 한다는것, 무력충돌과 전쟁의 위험을 막고 긴장상태를 완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긴급조치가 우선적으로 취해져야 한다는것 등의 내용을 담고있다. 편지에서는 남조선의 각당, 각파, 각계각층 인민들이 굳게 단결하여 군사파쇼독재를 종식시키며 북과 남이 함께 손잡고 반드시 자주, 평화, 통일의 새 력사의 장을 펼쳐나갈데 대하여 호소하였다. 민족단합 5개 방안은 조성된 남조선정세의 요구에 맞게 온 민족이 단결하여 조국통일의 길을 함께 열어나갈 획기적구실을 마련하기 위한 새로운 애국적발기로, 현실적대책으로 되었다. 하기에 민족단합 5개 방안은 그 정당성과 현실성, 공정성으로 하여 내외동포들속에서 커다란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남조선의 군사독재《정권》은 이에 불안을 느끼고 민족단합 5개 방안을 담은 편지를 《불온편지》라고 하면서 강제압수하여 그것이 남조선의 각계 인사들에게 가닿지 못하도록 방해해나섰다. 그러나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민족단합 5개 방안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면서 북과 남이 힘을 합치고 민족이 단합하여 련방제통일을 실현할것을 강력히 주장하여나섰다. **김금영**

남조선에서 해방을 맞이한 김창준목사는 서울장안이 좁다하게 뛰어나다며 좌익과 우익계의 인물들도 만나고 종교인들도 만나 우리 민족이 하루빨리 일제식민지 통치의 후파를 가지고 당당한 자주독립국가로 부흥하자면 하나로 힘을 합쳐야 한다고 토로하고 하였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호소해도 사상과 정결, 신앙을 초월한 민족적단합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비로소 그는 자기에게 민족의 힘을 하나로 묶어줄수 있는 옳바른 방향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서울신문》에서 장군님의 영상을 보습고 민족이 갈길을 몰라 모지름을 쓰던 어느날 목사는

《서울신문》에서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의 환신 영상을 보습게 되었다. 서울신문사의 두 기자를 만나 주신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 그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답을 주시고 인민들에게 자신의 열렬한 인사를 전하여주시기 바란다고 하신 기사내용에서 목사는 오래도록 눈길을 땀수 가 없었다. **리준식** 조선대학교 정치경제학부 교수



조국애방 70돐기념 민족통일대회 자주통일대행진 (2015년 8월)

## 통일을 불러 목사가 안긴 북극의 세계 (2)

목사는 이미전부터 면적이 있던 허허선생을 찾아가 자기의 심정을 터놓았다. 그로부터 김일성장군님께서 허허선생에게 보내주시기 바란다는 소식을 듣고는 목사는 기쁘게 눈이 젖어났다. **《서울신문》에서 장군님의 영상을 보습고 민족이 갈길을 몰라 모지름을 쓰던 어느날 목사는**

《서울신문》에서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의 환신 영상을 보습게 되었다. 서울신문사의 두 기자를 만나 주신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 그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답을 주시고 인민들에게 자신의 열렬한 인사를 전하여주시기 바란다고 하신 기사내용에서 목사는 오래도록 눈길을 땀수 가 없었다. **리준식** 조선대학교 정치경제학부 교수

이제 곁하지 않고 목사는 남조선그리스도교인민주동맹은 남조선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며 외세의 간섭이 없이 조선사람의 힘으로 자주독립국가를 세울것을 지향하는 애국적종교인민들의 단결임을 엄숙히 선언하였다. **이제 곁하지 않고 목사는 남조선그리스도교인민주동맹은 남조선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며 외세의 간섭이 없이 조선사람의 힘으로 자주독립국가를 세울것을 지향하는 애국적종교인민들의 단결임을 엄숙히 선언하였다.**

이제 곁하지 않고 목사는 남조선그리스도교인민주동맹은 남조선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며 외세의 간섭이 없이 조선사람의 힘으로 자주독립국가를 세울것을 지향하는 애국적종교인민들의 단결임을 엄숙히 선언하였다. **이제 곁하지 않고 목사는 남조선그리스도교인민주동맹은 남조선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며 외세의 간섭이 없이 조선사람의 힘으로 자주독립국가를 세울것을 지향하는 애국적종교인민들의 단결임을 엄숙히 선언하였다.**

이제 곁하지 않고 목사는 남조선그리스도교인민주동맹은 남조선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며 외세의 간섭이 없이 조선사람의 힘으로 자주독립국가를 세울것을 지향하는 애국적종교인민들의 단결임을 엄숙히 선언하였다. **이제 곁하지 않고 목사는 남조선그리스도교인민주동맹은 남조선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며 외세의 간섭이 없이 조선사람의 힘으로 자주독립국가를 세울것을 지향하는 애국적종교인민들의 단결임을 엄숙히 선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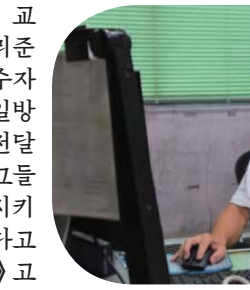
### 채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위해

◆ 활발히 벌어지는 운동 지금 채일동포들이 사는 일본에서는 지난 3월 10일에 개시된 《총련분회를 강화하는 해》의 운동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애국애족운동을 분회중심으로 전환하는데 성과와 새로운 경험을 마련하며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 경험교환의 방법으로 이 운동을 더욱 고조시켜나가기 위한 사업들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다. 채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앞당기며 애국애족의 진군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총련에서 《따라앞서기》를 전면내 내세우게 된것은 2018년의 《총련지부전향창조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 모임》이었다. 이 모임은 지난 시기와 달리 새로운 방법론과 경험들이 단시일내에 구상과 의도에 맞게 창조되는 등 긴급성시대에 총련이 처음으로 가진 새 방식의 모임으로서 그해 10월초부터 첫 공정으로 추진된 전향창조사업들

토대로 그 경험이 일반화된 배움과 쟁기의 마당으로 장식되었다. 오는 《따라앞서기》의 봉화는 각지의 총련지부, 분회들에도 이어져 빛을 뿌리고있다고 한다. ◆ 동포학생들에 대한 교육에 힘을 넣어 《COVID-19》 감염확대에 대처하여 당분간 수업을 정보통신망을 리용하여 진행하기로 결정한 총련의 조선대학교에서는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의 학습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와 실천을 끊임없이 진행하고있다. 정치경제학부 교원들은 경여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2016년 조선대학교창립 60돐에 즈음하여 보내주신 축하문과 올해 조선대학교창립 65돐에 즈음하여 보내주신 축전을 받들고 《교육의 방법과 내용에서 혁신을 일으키자.》는 결심으로 교수사업의 개선을 위해 힘을 기울이고있다.

부학부장이며 교수로써 리준식교수는 《교수자가 학생들에게 일반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것만으로는 그들의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 제한이 있다고 깨닫게 되었다.》고 하면서 수업에 대한 《만족도》와 그 리유, 교수내용에 대한 의견이나 자학습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교원들은 학생들의 능동적으로 학습하는 자세를 키우기 위한 새로운 방법도 찾을수 있었다고 하였다. 교원들은 료해결과에 기초하여 질 높은 수업방식과 과제연구, 평가방법에 대해 연구하여 그 경험을 정기적인 토론회마당에서 공유하고있으며 올해 6월에는 《학습자 중심의 판점》을 구현한 학습방법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어 교수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안이 제시되었다. 그밖에도 교수참관이나 교

수연구의 기회를 적극 마련하고 교수연구모임에서 교수내용의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하고있으며 교원들의 지향성과 교수내용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리공학부에서는 정보통신망을 리용하여 수업의 방법을 부단히 개선하고있다. 학부에서는 학생들이 자택에 있어도 주동적으로 학습에 나설수 있도록 학습자료와 과제를 많이 제공하고있으며 수업시간에도 개별 및 수순단위로 전공학습에 관한 방조를 적극적으로 주고 있다. **본시기자**



리준식 조선대학교 정치경제학부 교수